

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5. 2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8
IV. 국제신인도	12
V. 종합의견	15

I. 일반개황

면적	447천 km ²	G D P	601억 달러 (2014년)
인구	30.70 백만 명 (2014년)	1 인 당 GDP	1,958달러 (2014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Som
대외정책	서방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, 러시아의 영향력 축소	환율(달러당)	2,410 (2014년)

-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3,070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시장이자 지리적으로 중요지로서 천연가스(1.1조 m³), 원유(6억 배럴), 우라늄(6만 5,600톤), 금(1,700톤)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.
- 1991년 독립 이후 독재 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나, 정부의 효과적인 통제정책에 의해 전국적인 소요가능성은 낮음. 장기집권 중인 카리모프 (I. Karimov) 대통령이 고령임을 감안 시 후계구도와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음.
- NATO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며, 최근 미국과 EU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. 중국과도 에너지 부문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, 전통적 협력국인 러시아의 영향력은 다소 위축되고 있음.
- 남부 키르기즈 내 우즈베키스탄 독립령에서 민족분쟁이 발생하는 등 인접국가와 국경획정 문제 등을 놓고 긴장관계에 있으며, 아프가니스탄 반군과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 등 잠재적 테러위협에 노출되어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
경제성장률	8.5	8.3	8.2	8.0	6.3
재정수지 / GDP	0.3	0.1	0.1	0.4	-0.8
소비자물가상승률	12.1	13.3	11.0	11.9	11.7

자료: EIU

□ 2014년 경제성장률은 정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, 금·면화 등 국제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둔화

- 에너지, 면화, 금 등 주로 1차 산업이 발달함.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, 해외 근로자 송금유입, 산업다각화를 위한 정부투자 등에 힘입어 2009~2013년 기간 8%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함.
- 2013년에는 민간소비,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증가 등으로 8.0%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함.
- 2014년에는 2015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재정지출 및 정부투자가 증가하였으나, 러시아 경기침체, 주요 수출품인 금·면화의 국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둔화된 6.3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
□ 수입품 가격 상승, 휘발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0% 상회
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식료품과 소비재에 대한 가격통제를 통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억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. 2013년에는 통화공급 확대, 최저임금 및 연금보험료 인상 등으로 11.9%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.

- 2014년에는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, 숨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, 정부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휘발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11.7%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.

□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2014년 재정수지 적자 전환

- 우즈베키스탄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,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, 세계개편 등으로 소폭의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, 최근 들어 러시아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.
- 2013년에는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 추진, 선심성 사회보장 지출 등 지속적인 재정지출 수요에도 불구하고, 높은 경제성장률, 천연가스 수출 증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GDP 대비 0.4%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함.
- 2014년에는 상반기 중 소폭의 흑자를 유지하였으나, 하반기 들어 주요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의 경기침체, 숨화가치 하락 등 대외변수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림에 따라 GDP 대비 -0.8%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1차 산업과 중국, 카자흐스탄, 러시아 등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구조

- 에너지, 면화, 금 등 1차 산업의 수출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임.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1~15년 산업발전 계획 등을 통해 산업다각화 및 현대화를 추진 중임.
- 중국, 카자흐스탄, 러시아 등 특정국*에 대한 에너지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함. 하지만, 제조업 분야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수출시장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* 주요수출대상국 비중: 중국(21.2%), 카자흐스탄(15.9%), 러시아(14.5%)

□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규제 하에 있는 낙후된 금융업

- 은행업을 제외한 증권, 보험 등의 금융시장은 발달 수준이 미미하며, 상업은행은 모든 업무분야에서 중앙은행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음. 또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처럼 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 및 규제가 많고, 은행이 정부정책의 이행기관이자 기업 감시자의 역할도 하고 있음.
- 정부의 과도한 외환 통제로 현지화의 외화환전에 통상 6~12개월이 소요되며, 이로 인해 수출입 및 투자기업들은 제품 및 원부자재 수입, 결제대금확보, 과실송금 등에 애로를 겪고 있음.
 - IMF는 무역 및 결제시스템 자유화, 보다 유연한 환율제 채택 등 은행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나, 2003년 숨화의 완전태환 보장을 선언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강력한 외환통제가 지속되는 등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천연가스, 원유, 우라늄 등 풍부한 부존자원 보유

- 2013년 기준 천연가스(1.1조 m³), 원유(6억 배럴), 우라늄(6만 5,600톤), 금(1,700톤) 등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여 자원수출을 통한 자생력을 보유하고 있음.
- 천연가스와 원유는 주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-히바(Bukhara-Khiva), 우스투르트(Ustyurt), 수르한다리아(Surkhandarya), 페르가나(Fergana) 지역 등에 매장되어 있음.

□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시장확대 가능성

- 우즈베키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키르기즈, 투르크메니스탄, 카자흐스탄 등 인근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, 이란,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 지역까지도 시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.
- 인구 3,070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시장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저임금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. 또한 노동가능인구인 15~64세 인구계층이 전체 인구 중 70.3%, 중간연령이 27.1세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편임.

□ 불안정한 기업경영 환경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제약

-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제로의 전환 이후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 및 산업 각 부문에 대한 대통령 측근들의 이권 참여와 부정부패가 계속되었음.
- 열악한 기업경영 환경, 높은 수입관세 부과 및 외환통제 등 민간부문 영업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가 많아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2013년 2월 정부는 외환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달러구매 시 국내거주인의 현금결제를 제한하고,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을 통한 대금결제만 가능토록 하는 달러 암시장 양성화 방안을 내놓음.

다. 정책성과

□ 2011~15년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 추진

- 2011~15년 산업발전 5개년 프로그램을 통해 총 473억 달러 규모의 516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. 이 중 유망분야인 원유 및 천연가스 가공 및 개발이 60% 이상을 차지함.
- 동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5년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는 2010년 기준 산업생산의 38%를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63%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- 원유, 천연가스 가공 및 개발 분야 외에 투자유치 유망분야는 기계 및 자동차, 의약 및 바이오, 화학, 식품가공, 전기전자 산업 등임.

□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개정 등 투자환경개선 추진
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8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(Free Industrial and Economic Zone: FIEZ), 2012년 안그렌 특별산업단지(Special Industrial Zone: SIZ)를 설립하여 동 지역에 대한 물류허브 구축 및 경제개발을 추진함.
- 2013년 3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세 번째 경제특구로 지작(Jizzakh) 특별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하였으며, 동 산업단지는 첨단기술 보유기업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, 고용창출 등을 주목적으로 함.

-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제도와 관세특혜가 적용되어 법인의 소득세 및 재산세, 조정 및 사회인프라 시설 개발세, 소기업 단일통합세 등이 면제되며, 투자금액에 따라 3~7년간 동 혜택이 주어짐.
- 2012년 4월 10일 대통령령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, 2013년 12월에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주규제 완화, 사업등록 절차 간소화, 과실송금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됨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2010	2011	2012	2013	2014
경 상 수 지	2,408	2,627	1,390	1,229	1,133
경 상 수 지 / G D P	6.1	5.8	2.7	2.2	1.9
상 품 수 지	3,005	3,367	1,561	1,292	692
수 출	10,978	13,204	12,202	12,832	13,312
수 입	7,973	9,837	10,641	11,540	12,620
외 환 보 유 액	11,024	13,533	13,939	15,047	15,932
총 외 채 잔 액	7,779	8,415	8,853	9,568	10,363
총 외 채 잔 액 / G D P	20.0	18.6	17.3	16.9	16.9
D S R	3.5	3.0	5.0	2.9	2.8

자료: EIU, OECD.

□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, 흑자규모 축소 추세

-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, 최근 주요 수출품인 금과 면화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, 소비재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 설비 등 상품수입 증가로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.
- 2013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, 금과 면화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한 상품수지 흑자 축소로 전년 대비 악화된 2.2%를 기록함.

- 2014년에는 금과 면화의 국제가격 하락 지속, 러시아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근로자 과실송금 축소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1.9%를 기록함.
- **외환보유액은 증가 추세이나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등으로 2012년 이후 증가세 둔화**
 - 우즈베키스탄의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. 다만 최근 들어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, 숨화가치 하락 방어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.
 -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2014년 기준 9.7개월 분으로 2012년 이후 하락 추세이나 아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**2014년 총수출증가율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,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**
 - 러시아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근로자 송금유입 규모 감소, 금과 면화의 국제가격 하락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, 중국으로의 가스수출 증가로 2014년 총수출증가율은 전년과 유사한 10.3% 수준을 기록함.
 - 2014년 총수출증가율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,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GDP 대비 총수출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36.2%를 기록함.
 - GDP 대비 총수출 추이(%): 39.2('11)→35.7('12)→35.6('13)→36.2('14)
- **지역정세 불안정,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통화가치 하락 추세**
 - 우즈베키스탄 숨화가치는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, 러시아 경기침체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불안정한 지역정세,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달러 강세 등으로 최근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음.
 - 2014년 12월 말 기준 공식환율은 미 달러 대비 2,410숨으로 달러 암시장 거래환율인 미 달러 대비 3,330숨보다 약 28% 가량 평가절상되어 있어, 최근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달러 강세와 함께 향후에도 숨화가치는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추후 숨화 가치하락 압력 지속시 평가절하에 앞서 가격통제, 수입 및 자본유출 제한 등의 수단을 고려할 가능성 있음.

□ 외채구조는 양호한 수준 유지

- 금융시장의 발달 수준이 낮은 우즈베키스탄은 외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의존하여 총외채잔액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인해 경제규모 대비 외채상환부담은 양호한 수준임.
- 총외채잔액은 2013년 95.7억 달러에서 2014년 103.6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,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GDP 증가로 2014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전년과 동일한 16.9%를 기록함.
-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2014년 말 46.7%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형성함.

□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3.8%로 외채상환부담은 낮은 수준

- 우즈베키스탄의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13년 기준 6.3%, 2014년 5.8%로 중장기 양허적 조건의 외채가 대부분(약 94% 수준)을 차지함.
-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14년 기준 3.8%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,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역시 2010년 이후 3~5%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2014년에도 2.8%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준임.

Ⅲ. 정치·사회 동향

1. 정치안정

- 카리모프 대통령 장기집권체제 지속 중이나 후계구도가 불투명한 점은 불안요소로 작용
- 1991년 이후 장기집권 중인 카리모프 대통령의 1인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음. 그러나 카리모프 대통령이 77세(38년생)의 고령이고 후계구도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정치적 불안요소임.

- 2015년 대선을 앞두고 현 대통령의 건강문제로 인한 불출마 가능성이 일부 제기됨에 따라 장녀 굴나라 카리모바(Gulnara Karimova)를 비롯한 유력 대권후보들 간 후계경쟁이 심화됨.
 - 카리모바는 2013년 7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선단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, 출연자에 대한 뇌물요구 혐의로 본인소유 방송회사 폐쇄 등 정치적 압박을 받아 왔는데, 이의 배후인물은 또다른 유력 대권후보인 국가정보국 수장 러스탐 이노야토프(Rustam Inoyatov)로 드러남.
 - 카리모바는 이후 2014년 2월부터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2014년 9월에는 마피아 조직의 범죄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등 사실상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것으로 평가됨.
 - 확실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유력 대권후보들 간 세력다툼으로 카리모프의 퇴임 이후 우즈베키스탄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위험이 있으나, 중국적으로는 주요 정치인사 간 합의를 통해 후계자 선정 및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예상됨.
- 2014년 12월 총선 여당승리, 2015년 3월 대선 카리모프 현 대통령 승리 예상
- 88%의 투표율을 기록한 2014년 12월 총선에서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총 150석 중 47석을 차지하며 다수당*의 위치를 유지함.
 - 우즈베키스탄 의회는 총 150석 중 135석이 선거를 통한 선출직이며, 나머지 15석은 환경단체와 보건분야 활동가들로 구성된 우즈베키스탄 생태운동(Ecological Movement of Uzbekistan)에 자동배정됨.
 - * 우즈베키스탄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정당은 4곳으로 모두 친정부 성향을 띠고 있음.
 - 유럽안보협력기구(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-operation in Europe: OSCE) 산하 선거감시기구인 민주제도인권사무소(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: ODIHR)는 2014년 12월 총선을 자유 및 민주성이 결여된 선거로 규정함.
 - 총선결과 공식발표 90일 이후 대선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헌법에 따라 2015년 3월 29일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며, 자유민주당은 대선 후보로 현 대통령인 카리모프를 지명함.

- 카리모프 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며,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후계자 선정문제는 대선 이후로 잠정보류될 것으로 보임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전국적인 소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테러 위험 잠재

-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카리모프 독재체제는 주도적인 반대세력 출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전국적인 차원의 소요 가능성은 거의 없음.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합법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소규모의 저항은 증가할 수 있겠으나 공권력에 의해 신속히 진압될 가능성이 높음.
- 아프가니스탄, 북부 파키스탄에서 주로 활동하며, 최근 타지키스탄 등에서 영역을 강화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(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: IMU)의 잠재적 테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, 카리모프 대통령은 NATO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따른 안보공백으로 IMU를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함.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테러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나,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탄압은 향후 국민 불만을 일으켜 급진 주의적 움직임을 가져올 가능성 있음.
- *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: 카리모프 정권을 전복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장세력 연합체로 아프가니스탄, 북부 파키스탄, 타지키스탄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음.

3. 국제관계

□ NATO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미국과 EU와의 관계는 점진적 개선

- 서방의 대 테러전략 및 지역안보전략 추진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과 EU와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됨.
- 특히, 2014년 NATO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관련하여, 파키스탄이 자국을 경유하는 철수로를 봉쇄하는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이 대안경로로 떠오르는 등 서방과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.

- 미국 국무부 중앙아시아 차관보인 대니얼 로센블룸(Rosenblum)은 2015년 1월 NATO 철군에 따른 안보공백의 보완 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에 308대의 지뢰 방호차량(MRAP) 및 재무장 지원을 위해 차량 20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함.

□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추세 속 러시아의 영향력 다소 위축

- 중국은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, 총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에 서명한 바 있으며,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-중국 가스관 증설을 통해 천연가스 연간 수출량을 2013년 100억 m³에서 2016년 250억 m³ 규모로 늘릴 예정인 등 양국간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.
-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 6월 말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(CSTO)에서 탈퇴하는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으며,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등 최근 러시아의 영향력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임.
-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2014년 12월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통해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대 러시아 채무 8억 9,000만 달러의 97%에 달하는 8억 6,500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함.
-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은 2015~2019년 경제협력 강화에 관한 정부간 협정에도 서명하였으며, 카리모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어 러시아의 중요성과 그 동안 역내안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등 관계개선에 화답함.
- 하지만,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후 2015년 1월 의회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주도하는 역내 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(EEU)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, 독자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.
- 우즈베키스탄은 앞서 2014년 6월 EEU의 창설조약 체결 이후 경제적 독립 없이 정치적 독립이 불가함을 역설하며, EEU를 비판한 바 있음.

□ 주변국과의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, 테러위협, 국경획정 분쟁 등으로 인한 인접국가와의 긴장 지속

- 구소련 시대 민족분포에 대한 고려없이 무리하게 국경이 설정된 탓에 키르기즈, 타지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 등 인접국과 국경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,

특히 타지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수도 및 에너지 공급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.

- 2013년 1월 남부 키르기즈 내 우즈베키스탄 독립령인 소흐(Soh)에서 우즈베키스탄인과 키르기즈인 간 민족분쟁이 야기되었으며, 소흐 주민들이 키르기즈 국경수비대 무기를 탈취하고 키르기즈인을 인질로 체포하는 사건 발생함.
 - 동 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없으나, 2010년 6월에 발생한 키르기즈 유혈사태 이후 가장 큰 민족분쟁으로 동 지역은 국경 획정 문제로 인한 민족분규가 지속되는 등 긴장관계가 상존하고 있음.
-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주변국과의 유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나, 국경획정, 수도 및 에너지 공급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관계 개선이 단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.
 - 카리모프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듀산베에서 열린 2014년 9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역내 안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를 약속함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양호한 수준의 외채상환태도

- 우즈베키스탄은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인해 아직까지 총외채규모가 크지 않은 편으로, 면화, 금 등의 수출 수입으로 공적외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있어 전반적인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임.
- 또한, 우즈베키스탄의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14년 말 기준 5.8% 수준으로 대부분의 외채가 중장기로 구성되어 있음. 2014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총 9.1억 달러(단기 1.1억 달러, 중장기 8.0억 달러)이며, 이 중 0.1%에 해당하는 90만 달러가 연체 중임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국가신용등급은 낮은 수준 지속

○ OECD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신용등급을 2008년 이후 현재까지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. 2015년 1월 제71차 OECD CRE(Country Risk Experts) 회의*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목인 금·면화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 부진 우려, 숨화가치 하락에 따른 가계소비 부진 등을 반영하여 기존 6등급이 유지됨.

* OECD 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수출다변화, 자국산 수출제품 증대, 내수 강화 등의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, 러시아 경기침체에 따른 전염효과가 우려된다는 평가의견이 제시됨.

○ 3대 민간 신용평가기관인 S&P, Moody's 및 Fitch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.

□ 주요 ECA 지원태도 ('14. 10월 기준)

- 미국 EXIM : 제한적 인수가능
- 영국 ECGD : 단기인수가능, 중기인수는 제한적 인수
- 독일 Hermes :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.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등급		종전 평가등급	
수출입은행	D1 (Negative)	(2015. 2)	D1 (Stable)	(2014. 4)
OECD	6등급	(2015. 1)	6등급	(2013. 1)
S&P	-		-	
Moody's	-		-	
Fitch	-		-	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: 1992년 1월 29일(북한과는 1992년 2월 7일)

□ **주요협정:** 세관협력협정('99), 형사사범공조조약('04), 사회보장협정('06), 외교관 여권사증면제협정('09), 근로활동협정, 군사비밀보호협정(이상 '12), 관광협력협정('13)

□ **양국간 교역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 지속**

○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,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4년 기준 20.6억 달러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초과함.

- 자동차부품, 자동차, 원동기 및 펌프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,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부분품 및 원부자재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함. 우리나라는 주로 우라늄, 제지원료, 천연섬유사 등을 수입하고 있음.

<표 4> **한·우즈베키스탄 교역규모**

단위: 백만 달러

	2012	2013	2014	주요품목
수 출	1,767	1,968	2,032	자동차부품, 자동차, 원동기 및 펌프
수 입	42	53	27	우라늄, 제지원료, 천연섬유사
합 계	1,809	2,021	2,059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□ **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 감소 추세**

○ 2014년 12월말 기준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 규모(누계기준)는 총 240건 (신규법인수), 6.4억달러(투자잔액)를 기록하고 있으며,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, 광업 등임.

○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제조업, 광업 부문 투자가 급감함에 따라 감소추세에 있음.

- 직접투자규모 추이: 5,496만 달러('11)→1,896만 달러('12)→1,305만 달러('13) →1,161만 달러('14)

V. 종합의견

-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였으나, 2014년 들어 러시아 경기침체, 주요 수출품인 금·면화의 국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둔화된 6.3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- 에너지 수출을 통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나, 최근 그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, 러시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14년 재정수지는 적자로 전환됨.
- 카리모프 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5년 3월 열릴 예정인 대선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이 출마하여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됨.
- NATO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관련하여 서방과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, 중국과도 대규모 에너지 수출계약 체결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.

조사역 김세진 (☎02-6255-5703)

E-mail: sejin0302@koreaexim.go.kr